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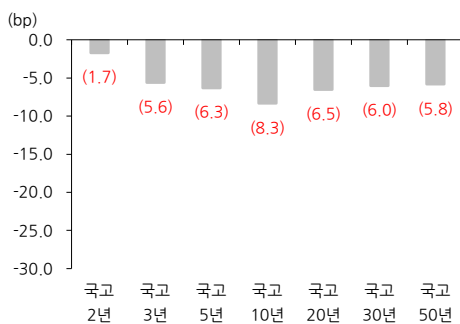
# 한화 FI Weekly

Higher for Longer Longer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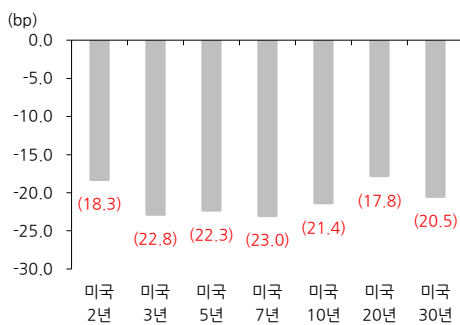
## [주요 데이터 및 차트]

###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올라간 중립금리, 높아진 종착점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 기준금리는 2.75%로 2개 분기 연속 상향 조정. 이번 점도표에서 중간값 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 기준금리를 전망한 위원은 19명 중 9명. 3월 7명보다 2명 증가. 예전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를 예상한 사람은 8명에서 5명으로 감소

중립금리가 높아지면 인하 사이클에서의 Terminal Rate도 상승. 여기에 더해 잠재 성장률인 장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최대, 최소, 중간값 모두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종착점은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인데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물가가 긴 시간동안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 물가가 낮으면 경제가 괜찮아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꿔볼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름. 물가가 높으면 경기가 침체로 빠지지 않는 한 완화정책을 운영하기 어려움

장기 기준금리는 결국 잠재성장률에 수렴한다는 통념은 이번 정책 사이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모습. 시장금리는 물론이고 기준금리도 예전 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 내년도 쉽지 않다

2025년 말 연준 물가 전망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물가는 올해보다 목표 수준에 근접해 있을 것이라는 것에 큰 이전 부채 그림에도 2025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 횟수는 4회(중간값 4.125%). 이는 내년에도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

통상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면 실질 기준금리가 (-)이거나 중립금리 아래에 위치해야 함.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2.75%이고, 전망치에 대입한 내년 말 실질 기준금리는 1.825%. 'Easing Cycle'은 2025년에도 도래하기 힘들 것.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2025년 적극적인 인하도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 통화정책이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것은 올해도, 내년도 어려울 전망



## 주간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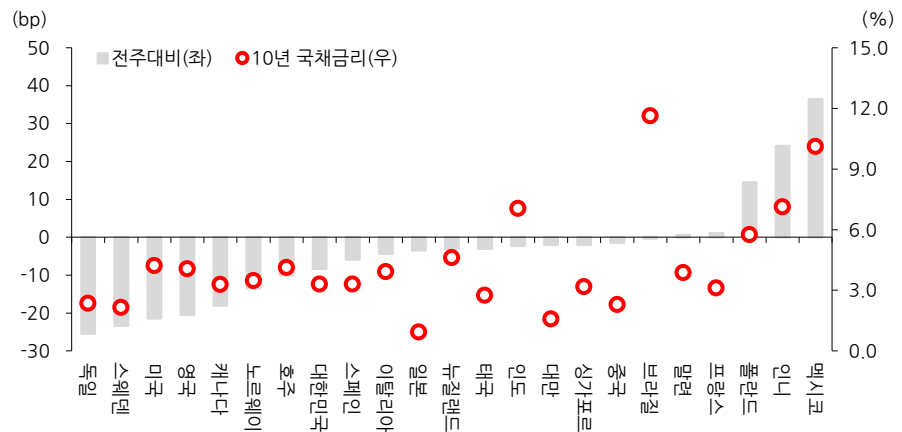
###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

지난 주 글로벌 국채 금리는 대부분 하락했다. 시장에 우호적인 미국 경제지표 발표 결과, 점도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이지 않았던 FOMC 회의 내용 등 미국 發 재료가 시장 강세를 이끌었다. 주 후반 미국 10년 금리는 장중 4.20%를 하회하기도 했다. 다만, 멕시코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양상이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었다.

### 국고채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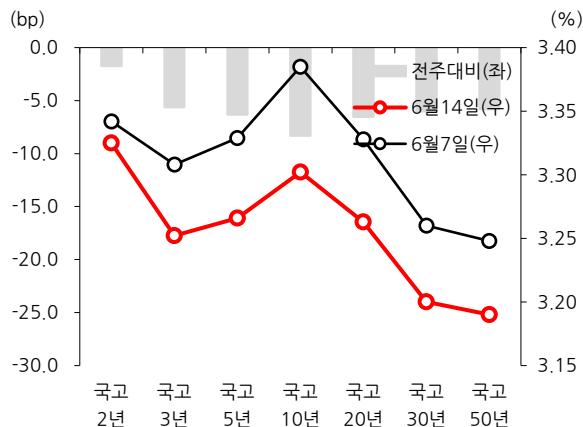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도 하락했다. 특별한 국내 이슈는 부재했던 가운데 대외 금리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5.6bp, 8.3bp 하락한 3.25%, 3.30%를 기록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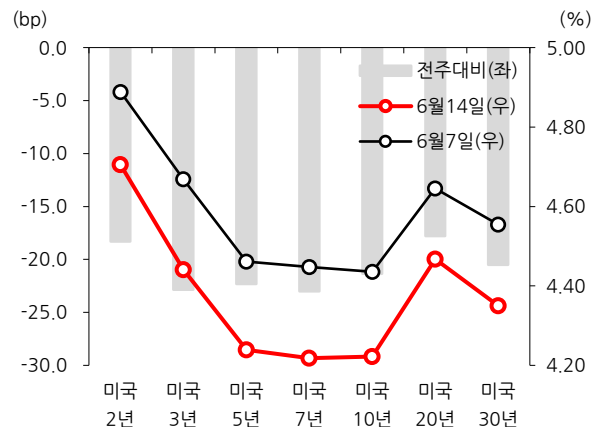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채권시장 전망

### 1. 올라간 중립금리, 높아진 종착점

진짜로 장기가  
중요했다

당사는 FOMC Preview 자료에서 단기보다 장기 전망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 기준금리는 2.75%로 2개 분기(3월: 2.50% → 2.5625%) 연속 상향 조정되었다.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을  
전망하는 위원이 9명

이번 점도표에서 중간값인 2.75%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 기준금리를 전망한 위원은 19명 중 9명이다. 3월 7명보다 2명이 늘어났다. 예전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를 예상한 사람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 Mester 총재는 공개적으로 본인의 장기 기준금리 전망은 3.00%임을 밝히기도 했다.

높은 중립금리는  
높은 Terminal Rate를 의미

중립금리가 높아지면 조만간 시작될 인하 사이클에서의 Terminal Rate도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잠재 성장률인 장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최대(2.5%), 최소(1.6%), 중간값(1.8%) 모두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종착점이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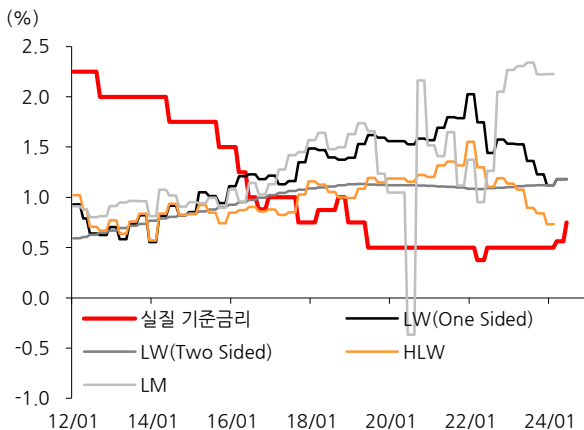
장기 성장률 유지는  
중립금리 조정이  
물가에 기인한다는 것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인데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물가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물가가 낮으면 경제가 괜찮아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꿔볼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물가가 높으면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빠지지 않는 한 완화정책을 운영하기 어렵다.

시원시원한  
인하는 기대하지 말자

장기 기준금리는 결국 잠재성장률에 수렴한다는 통념은 이번 정책 사이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물가부터 잡아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목표인데 그 물가는 굉장히 느리게 둔화되는 모습이고, 당장의 경제에 큰 위험은 없어 보인다. 시장금리는 물론이고 기준금리도 예전 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림4] 장기 기준금리 및 중립금리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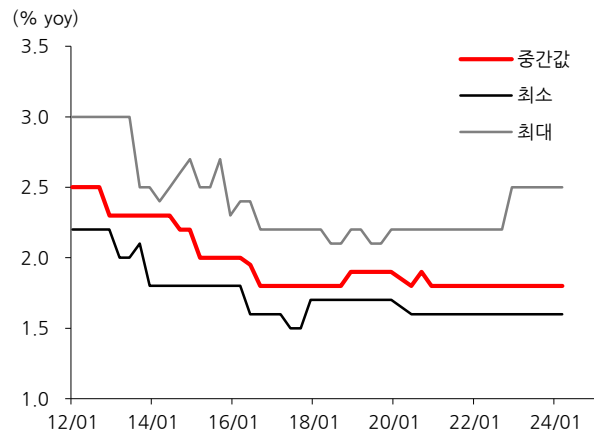


주1: 실질 기준금리 = 연준 장기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 - 장기 PCE 중간값

주2: 2024년 1분기 HLW, LM 수치는 발표 예정

자료: the Fed, New York Fed, Richmond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 내년도 쉽지 않다

내년 통화정책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

당장 내년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2025년 말 연준 물가 전망치(PCE, Core PCE 모두 2.3%) 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물가는 올해보다 목표 수준에 근접해 있을 것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2025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 횟수는 4회(중간값 4.125%)다. 이는 내년에도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인하를 완화정책으로  
보는 것은 금물

참고로 ‘인하 = 완화’가 결코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몇 차례 인하는 그저 긴축의 강도를 조금 풀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통상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면 실질 기준금리가 (-)이거나 중립금리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2.75%이고, 전망치에 대입한 내년 말 실질 기준금리는 1.825%다. ‘Easing Cycle’은 2025년에도 도래하기 힘들어 보인다.

통화정책 기대는  
조금씩 떨어내자

연말까지 신중한 통화정책은 유지될 것이다. 2회를 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장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2025년 적극적인 인하도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이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것은 올해도, 내년도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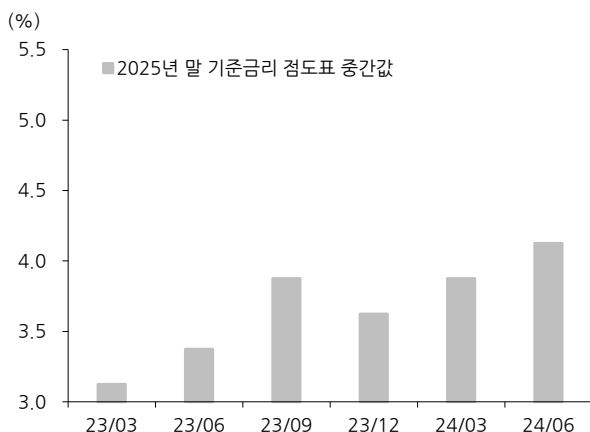
국고 3년: 3.18~3.28%  
국고 10년: 3.28~3.38%

이번 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3.18~3.28%, 3.28~3.38%를 제시한다. 주간 주요 이벤트는 5월 미국 소매판매(6/18)와 새로운 연준 구성원들인 Kugler 이사와 Musalem 총재의 연설(6/19), 글로벌 통화정책 디커플링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볼 수 있는 영란은행 MPC(6/20) 등이 있다. 지난 주 장 마감 이후 이벤트들 대부분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인 만큼 주 초반을 중심으로 강세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가구/전자제품  
판매 실적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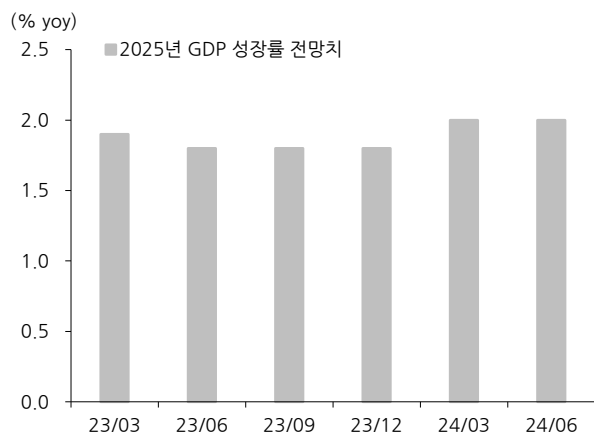
소매판매 컨센서스(+0.2%)는 전월(+0.0%) 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신용을 일으켜 구매하는 자동차와 가구/전자제품 판매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품목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적극적인 소비 행태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6] 2025년 기준금리 점도표 중간값 추이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6/11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낮아질 필요는 없음(no necessarily on a linear declining path).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동결 및 유지될 시간도 필요할 것</li> <li>- 한 차례 회의보다 더 긴 시간동안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li> <li>- 시간에 기반(time dependent)한 금리정책 운영은 도움이 되지 않음</li> </ul>
6/13	Jerome Powell (연준 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시장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 보일 것</li> <li>-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달성 두 가지 연준 목표 달성 관련 리스크도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li> <li>-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물가에 강한 확신이 든 상황이 아님.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 필요</li> <li>- SEP는 정책 운영 계획이 아님(not a plan or any kind of decision,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뜻). 전망에 대한 강한 확신 부재</li> <li>- 경제가 계속해서 건조한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고착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현재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최대한 길게 유지할 것</li> <li>-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면 기준금리는 당연히 인하될 것</li> <li>-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점차 보수적으로 전망하기 시작(practicing a slight element of conservatism on our inflation outlook)</li> <li>- 연준 구성원들은 전망치에 향후 정책 관련 시그널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음</li> <li>-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 약화는 정책 대응 요인</li> <li>- 5월 CPI 발표 이후 구성원들은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most) 인사들은 기존 전망치 유지</li> <li>- 고용시장은 최근 몇 년같이 상당히 과열(super heated)된 수준이 아님</li> <li>- 5월 물가 지표가 연준 모두의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li> <li>- 현재 경기 편더멘털은 연준이 원하는 수준</li> <li>- 물가 압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주거 제외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강력함</li> <li>- 신용카드 연체 및 디폴트는 심각한 수준이 아님</li> <li>- 정책 완화 결정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음</li> <li>-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씩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have the ability right now to approach rate-cut question carefully)</li> </ul>
6/14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금리 결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기에 국채 매입 축소 결정</li> <li>- 물가는 하반기 목표 수준 부근 도달 전망</li> <li>- 연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 중</li> <li>- JGB 매입 축소는 유의미한 규모(considerable volume)일 것. 시장 의견을 들은 후에 정확한 규모와 세부 사항 결정 예정</li> <li>- 다음 번 회의에서 국채 매입 축소 세부사항을 결정한 뒤 지체없이 시행할 것(start a reduction of JGB purchases immediately after at the next policy meeting)</li> <li>- 물가가 목표수준에 수렴하는 모습이 보일 때 기준금리 인상할 것.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지거나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다면 이른 시기 인상도 가능</li> <li>- 정확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알 수 없음. 국채 매입 축소 규모도 마찬가지로</li> <li>- 1~2년 내에 대차대조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제한적</li> <li>-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와 국채 매입 축소 방안 논의 예정. 7월 인상도 가능(naturally possible). 그 여부는 데이터가 결정할 것</li> <li>- 민간 소비 개선 전망에 바뀐 것은 없음</li> <li>- JGB 축소 방침을 발표한 것은 7월 회의 때까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함</li> <li>- 비용 증가에 기인한 물가 상승 경계 중. 물가 추세는 2%를 소폭 밑도는(little below 2%) 수준</li> <li>- 임금 상승은 서비스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li> <li>- 통화정책 운영의 주된 도구는 단기 금리가 될 것</li> <li>-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전망은 변함이 없음. 중립금리 추정 밴드를 좁히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음</li> </ul>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6/14	Loretta Mester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주 발표된 물가 지표들은 환영할만한 뉴스들. 물가는 1분기 정체 국면에서 다시 둔화되기 시작</li> <li>- 물가는 조금 오랫동안 더 둔화되는 흐름 확인이 필요(inflation move down for a bit longer)</li> <li>-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그럼에도 고용시장은 매우 강력</li> <li>- 물가가 2%로 복귀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li> <li>- 본인은 향후 몇 달 동안 물가의 꾸준한 둔화를 보코싶음</li> <li>- 기준금리 인하를 지나치게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it's important not to wait too long to cut rates)</li> </ul>
6/14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향해 가고있음</li> <li>- 경제에 큰 충격이 있고,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구체화되더라도 물가는 2025년 하반기쯤에나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li> <li>-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에 대한 확신을 반영</li> </ul>
6/15	Loretta Mester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 관련 확신을 얻기 위해 여전히 해야할 일이 남아있음. 최근과 비슷한 물가 수치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확인될 필요</li> <li>- SEP 경제전망 중간값들은 본인의 전망과 비슷. CPI 발표 이후에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음</li> <li>- 아마도 2026년까지 물가는 2%에 도달하지 못할 것</li> <li>- 물가가 둔화되더라도 건전한 고용시장을 유지해야 함</li> <li>- 통화정책은 양 방향 리스크에 대응하기 좋은 수준에 위치. 아직까지 물가는 상방 압력이 우세하고, 고용은 상, 하방 압력이 비슷한 상황</li> <li>- 기업들은 올해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고 응답</li> <li>- 본인은 장기 기준금리를 3%로 전망</li> </ul>
6/15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CPI 지표는 매우 긍정적(very good). 앞으로 많은 추가 데이터들이 5월가 같다면 크게 만족스러울 것(if we got a lot of months like May's CPI data, we would be feeling very good)</li> <li>- 추가적인 진전 확인 필요. 이번과 같은 데이터들을 몇 차례 더 확인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li> <li>- 중단기 시계열(in the near to medium term)에서 기준금리의 정상 수준 복귀는 2%로 향하는 물가 흐름에 달려있음</li> <li>-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통화가 증가하기 시작. 제조업과 농업은 하강 국면에 진입 시작</li> <li>-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나 침체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음</li> <li>- 물가 진전이 지속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것이 가능</li> <li>- 유럽지역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강세 요인. 달러 강세는 무역은 물론 고용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li> <li>- 물가가 다시 1분기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능하게 할 것</li> <li>- 개인적으로 월간 임금 데이터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li> </ul>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7	18	19	20	21
<p><b>Phil Lane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설</b></p> <p>(한국) 국고 10년 입찰(2조 7,000 억원)</p> <p>(미국) 6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전월: -15.6, 전년: 6.6)</p> <p>(중국) 5월 산업생산 (예상(y): 6.0%, 전월바: 1.0%, 전년바: 6.7%) 5월 소매판매 (예상(y): 3.0%, 전월바: 0.0%, 전년바: 2.3%)</p>	<p><b>호주 RBA Reserve Bank Board Meeting</b> <b>Harker</b>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b>Barkin</b>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미국) 5월 소매판매 (예상(m): 0.2%, 전월바: 0.0%, 전년바: 3.0%) 5월 산업생산 (예상(m): 0.4%, 전월바: 0.0%, 전년바: -0.4%)</p> <p>(유로존) 6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47.0, 전년: -10.0) 5월 CPI, Core CPI (CPI 전월바: 0.2%, 전년바: 2.4%) (Core 전월바: 0.4%, 전년바: 2.9%)</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p><b>미국 휴장(노예해방일)</b> <b>일본 BoJ 4월 금융정책회의 의사록</b> <b>Kugler</b> 연준 이사(중립, O) 연설 <b>Musalem</b>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b>Goodbee</b>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X) 연설</p> <p>(한국) 국고 3년 입찰(1조 2,000 억원)</p> <p>(미국) 20년 국채 입찰 (4.64%, 간접: 70.8%, 응찰률: 2.51배)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45, 전년: 55)</p>	<p><b>브라질 BCB COPOM</b> <b>영국 BOE Monetary Policy Committee</b></p> <p>(미국) 5월 주택 착공 (예상(m): 1.1%, 전월바: 5.7%, 전년바: -0.6%) 5월 건축 허가 (전월바: -3.0%, 전년바: -2.0%)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업황 전망 (전월 4.5, 전년: -13.6)</p>	<p><b>Barkin</b>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 5월 PPI (전월바: 0.3%, 전년바: 1.8%)</p> <p>(미국) 5월 선행지수 (전월: 101.8, 전년: 106.9) 5월 기준주택 판매 (예상(m): -1.0%, 전월바: -1.9%, 전년바: -1.9%)</p> <p>(유로존) 6월 제조업 PMI(잠정) (전월: 47.3, 전년: 43.4)</p>
24	25	26	27	28
<p>(한국) 국고 5년 입찰(2조 3,000 억원)</p> <p>(미국) 6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19.4, 전년: -24.4)</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p>(한국) 국고 20년 입찰(7,000 억원)</p> <p>(미국) 5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 (전월: -0.23, 전년: -0.17) 4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바: 0.1%, 전년바: 6.7%) 4월 Case 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전월바: 0.33%, 전년바: 7.38%)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 102.0, 전년: 110.1) 6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 0.0, 전년: -8.0)</p>	<p><b>Bowman</b> 연준 이사(매매, O) 연설</p> <p>(미국) 2년 국채 입찰 (4.92%, 간접: 57.9%, 응찰률: 2.41배) 5월 신규주택 판매 (전월바: -4.7%, 전년바: -7.7%)</p>	<p>(한국) 7월 BSI 제조업황전망 (전월: 76.0, 전년: 72.0)</p> <p>(미국) 5년 국채 입찰 (4.55%, 간접: 65.0%, 응찰률: 2.30 배) 1분기 GDP잠정 (전분기비연율: 1.3%) 5월 미결주택 판매 (전월바: -7.7%, 전년바: -0.8%)</p> <p>(유로존) 5월 M3 통화공급 (전월바: -0.9%, 전년바: 1.3%)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 -14.3, 전년: -16.1) 6월 경기 신뢰지수 (전월: 96.0, 전년: 95.7)</p>	<p><b>Barkin</b>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 5월 소매판매 (전월바: -3.2%, 전년바: -2.6%) 5월 광공업생산 (전월바: 2.2%, 전년바: 6.1%)</p> <p>(미국) 7년 국채 입찰 (4.65%, 간접: 66.9%, 응찰률: 2.43 배) 6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2.0, 전년: -11.0) 5월 PCE, Core PCE (PCE 전월바: 0.3%, 전년바: 2.7%) (Core 전월바: 0.2%, 전년바: 2.8%) 6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 69.1, 전년: 64.2)</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p>(중국) 6월 제조업 PMI (전월: 49.5, 전년: 49.0)</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